

##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수 04:15-24)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은 자신이 40년 동안 방황해온 광야의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단강이 자신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일어나 쌓여 물이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선출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자리에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명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죄는 인간들의 기억력에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종종 자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요 그 시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중심적이요 실리주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역사상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 하나님의 손의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취한 12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취해 길갈에 세운 12 돌은 무엇입니까? 성찬예식과 세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은 여러분들 마음과 삶 가운데 있는 살아 있는 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돌은 무슨 뜻인가? 묻도록 해야 하며 답을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있는 홍해와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자녀들이, 이웃들이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어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